

2016.7.11.



한중 FTA와 중국 콜드체인시장 진출방안

국제물류연구실장 이성우

Contents

Part I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

1. 세계 경제 저성장 고착화
2. FTA 및 메가 FTA 확대
3. 국제 분업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4.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대
5. 전자상거래 발달 및 유통과 물류시장 통합
6.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성장

Part II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1.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
2. 중국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현황
3. 우리나라 농수산품의 중국 수출 동향
4. 한국 식품의 중국진출 애로사항

Part III 중국 콜드체인 시장 진출방안

1. 진출대상 입지
2. 진출대상 분야
3. 한·중 기업간 협력 진출
4. 활용가능 Biz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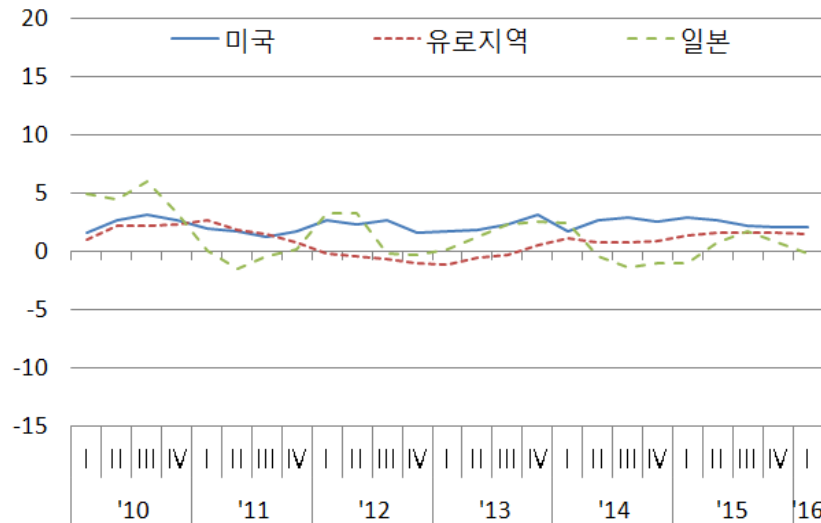
Part I.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

1. 세계 경제 저성장 고착화
2. FTA 및 메가 FTZ 확대
3. 국제분업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4.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대
5. 전자상거래 발달 및 유통과 물류시장 통합
6. 글로벌 콜드체인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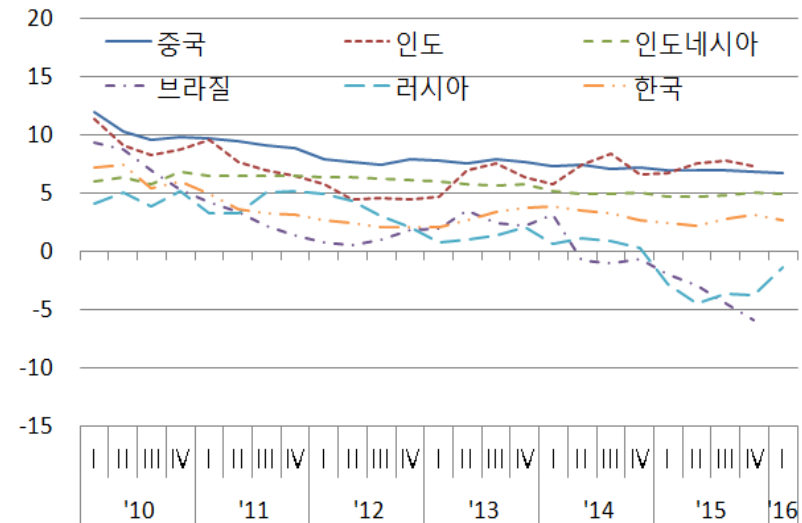


- (글로벌) 세계 경기 회복세의 저조, 중국의 감속 성장, 보호 무역주의 증가 등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률의 성장 둔화 지속 → 세계 교역량의 둔화 전망
 - 2016년 세계 경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회복세 지연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 지속으로 3.0% 성장 전망(KIEP)
- (한국) 중국의 부품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중국과의 협업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전환, 높은 가계부채, 낮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원화강세 등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을 둔화
 - (국내GDP성장률) 80~90년대 6~7% 수준 → '14 ~'19년 2.6~3.3% 수준으로 하락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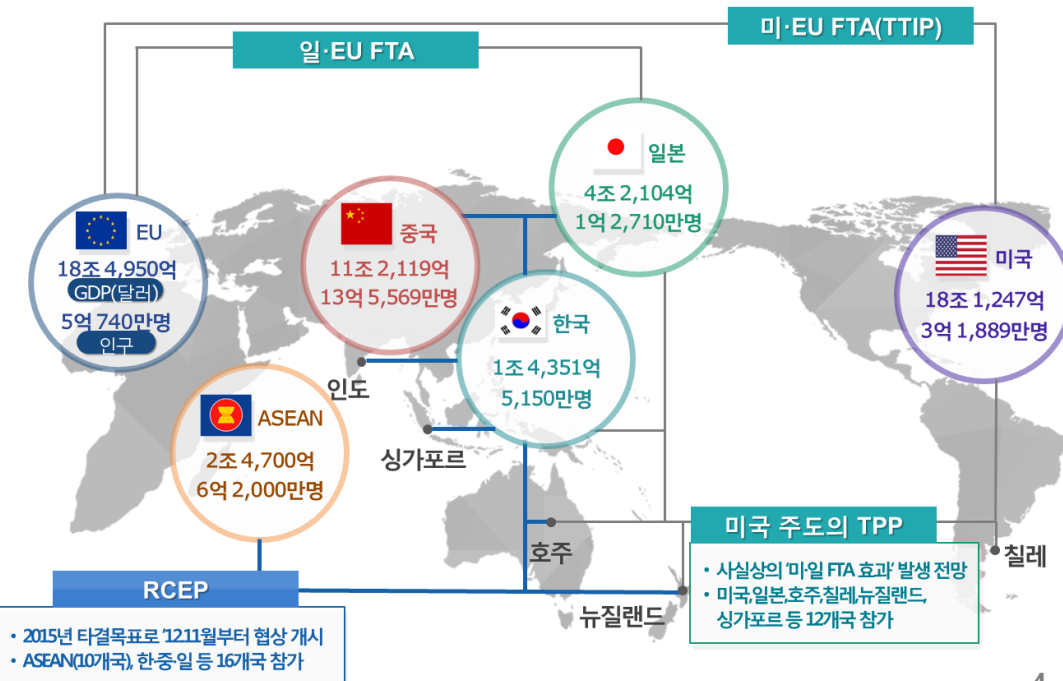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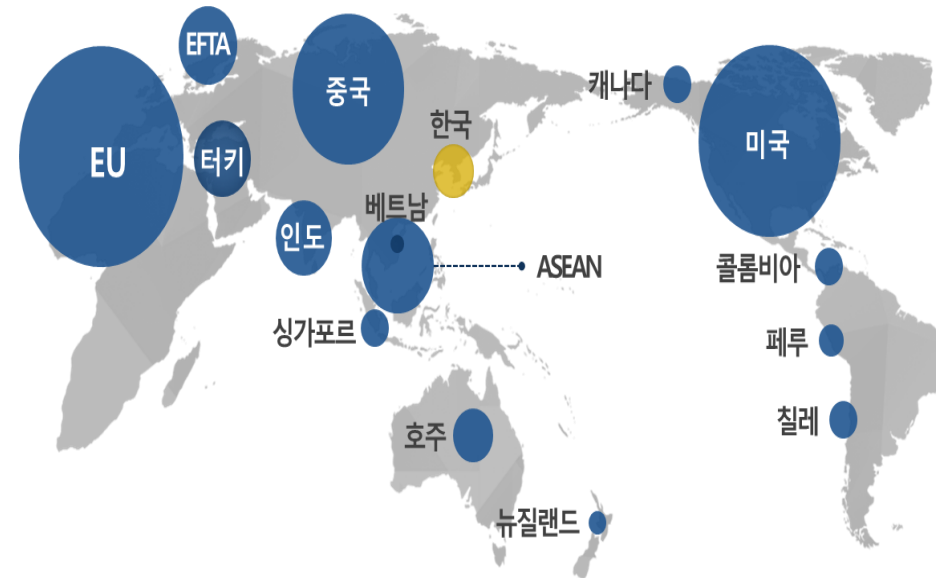
2. FTA 및 메가 FTA 확대

- (글로벌) '00년대 FTA 중심의 양자주의에서 메가 FTA 중심의 지역주의로 변화
 - (글로벌 FTA 발효) '94년 47개 → '15년 398건 발효
 -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Mega FTA 협상이 최근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어 경제 블록간 FTA 추진
- (한국) 2003년 이래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국가와의 FTA 추진 및 메가 FTA 추진 고려
 - 우리나라는 '16년 현재 52개국(15건)과 FTA 체결,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과 체결

[글로벌 메가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 FTA 체결국(15건, 52개국)]



주 : 원의 크기는 GDP와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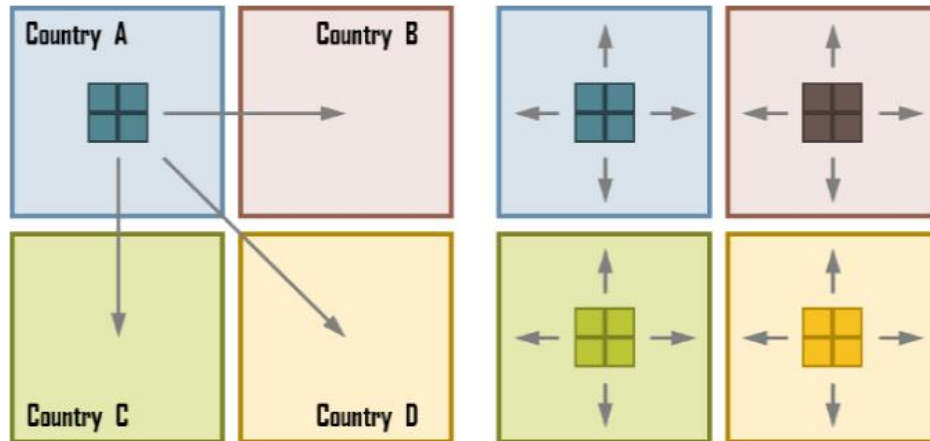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2016.4.21.

3. 국제분업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 글로벌가치사슬(GVC)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SC) 확대에 의한 지역 통합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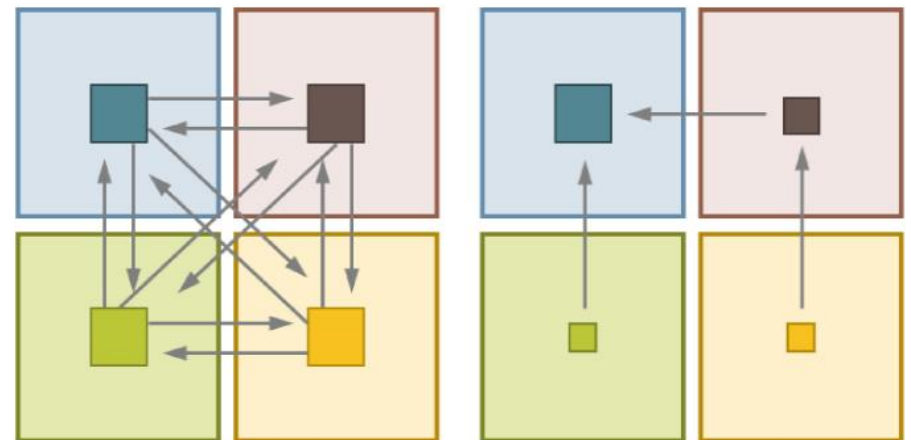
- 전세계를 무대로 한 생산 네트워크화 (생산 과정의 분업화 진행), outsourcing 및 offshoring, 수직 및 수평 통합 등
- 제조업체들이 기존 현지 물류업체 또는 자가 물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기업 밖의 제 3의 물류기업과 계약을 통해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의 운송, 재고관리, 공급사슬관리 등 서비스 받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물류 기업의 중요성이 커짐 → **물류 중요성은 갈수록 심화**

[다점 국내 생산네트워크]



* 국제적 차원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국내적 차원에서는 어느 한 지역이 중앙집권화된 생산 구조

[글로벌 통합 생산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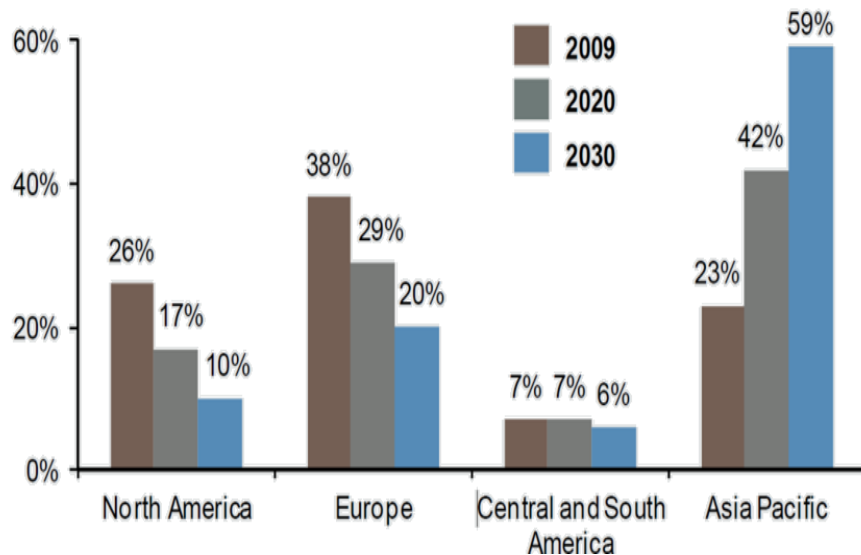


* 국내적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수평적(분권적)으로 특화된 생산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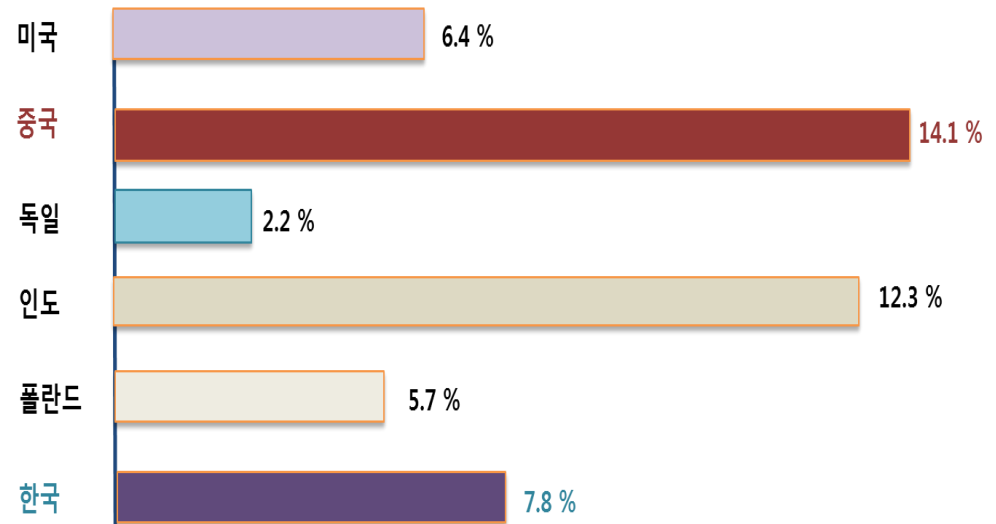
4.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대

- (생산)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15개국에 5개국 포함
 - 중국 1위, 일본 2위, 한국 6위, 인도 10위, 인도네시아 13위(순위 진입)
- (소비) 중산층 소비 비중 점차 증가, 2020년 세계 최대 비중(42%) 차지
- (시장 통합) One ASIA가능성 - 한중일 FTA, RCEP, TPP 협상 중
 - 아시아에서 생산하여 아시아에서 소비하는 패턴 증가(성장성, 시장규모 충족)
- (물류) 강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무역 상호의존성 확대, 세계 물류시장의 성장도 견인

[글로벌 중산층 소비 비중]



['13~'17 세계 주요 관심국의 계약물류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 JP Morgan, *Guide to the Markets ASIA*, 2013.

자료 : Roland Berger Strategy, *Global Logistics Markets*, 2014.8.

5. 전자상거래 발달 및 유통과 물류시장 통합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 거래, 신흥 경제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
 - 전자상거래 시장은 B2B거래,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B2C 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확장으로 물류와 유통 등 연관 업종 융복합)
 -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으로 '물류마켓' 및 '옴니채널 물류' 활성화 → 고객중심 물류서비스 제공
 - 제조-유통-물류-소비자 B2B, B2C, M2C, C2C, O2O 융합
 - * 블랙프라이데이(미국), 광군제(중국) 등 각 나라 유통할인행사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전 세계 제조, 유통, 물류회사 등이 참여(월마트: 온라인 주문 체제를 갖추면서 e-commerce 시장 진입 본격화)

[세계 지역별 B2C 거래액 현황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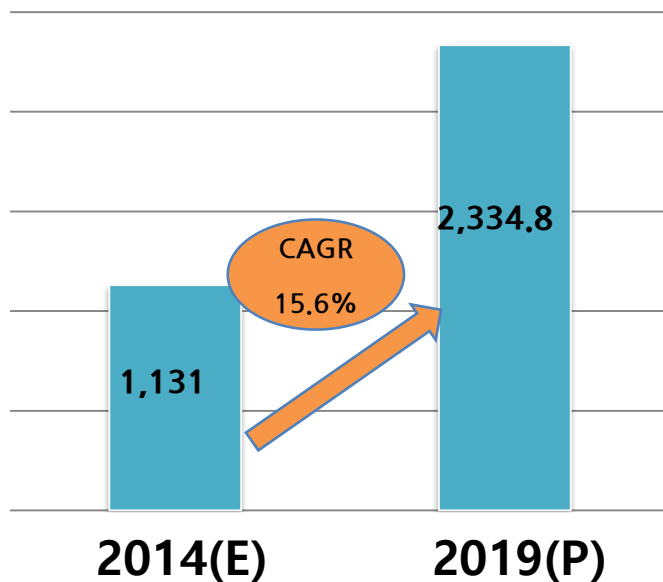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세계	1,233	1,471	1,700	1,922	2,143	2,356	13.8%
북미	430	484	539	598	658	721	10.9%
아시아 태평양	349	459	568	675	780	881	20.3%
서부유럽	326	374	418	459	499	535	10.4%
남미	52	63	71	79	84	87	10.8%
중동부유럽	51	59	65	67	71	75	8.0%
중동 아프리카	27	34	39	46	51	59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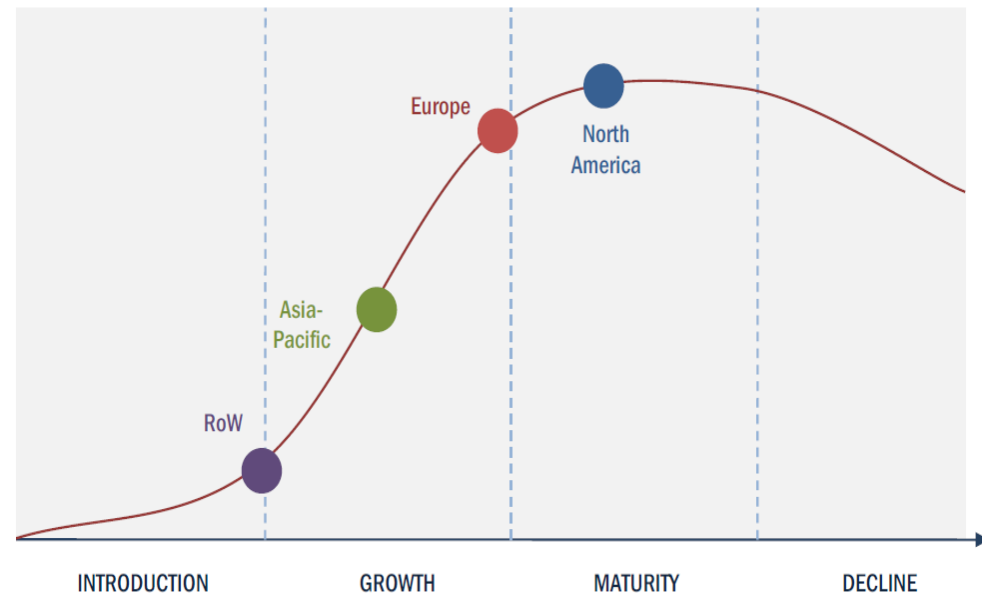
6.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

- 식품안전 및 환경문제, 냉동·냉장 기술의 발전 등으로 콜드체인이 각광받고 있으며, 콜드체인 시장은 전 세계 신선제품 교역량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 및 신선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동반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13년 978.4 억 달러 수준이나, '19년까지 2,334.8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북미시장 성숙기 진입, 유럽 도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기로 판단되며, 중국 23.2%, 인도 21.6% 씩 성장 전망

[세계 콜드체인 시장 성장 전망 (억 달러)]



[식품콜드체인 시장 성장주기]



Part II.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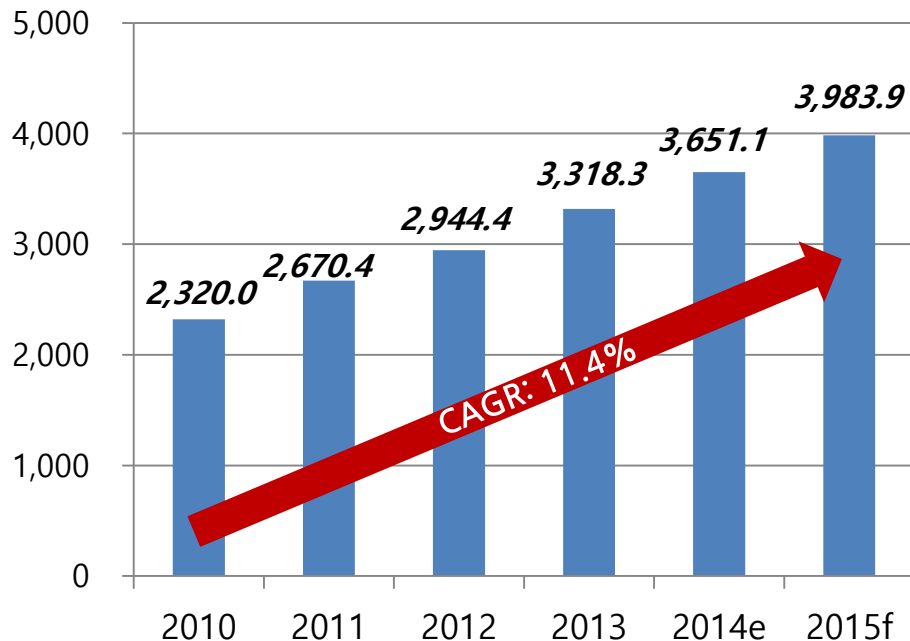
1.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
2. 중국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현황
3. 우리나라 농수산품의 중국 수출 동향
4. 한국 식품의 중국진출 애로사항



1.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

-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대국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 및 생활패턴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콜드체인 식품 소비도 지속 증가
 -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주요 콜드체인 식품 소비는 '10년 2,320 위안에서 '15년(e) 3,984 위안 추정
- '13년 중국의 콜드체인 식품의 물류총액은 3.25조 위안(한화 약 584조 원)으로 추정되며, '15년 4.32조 위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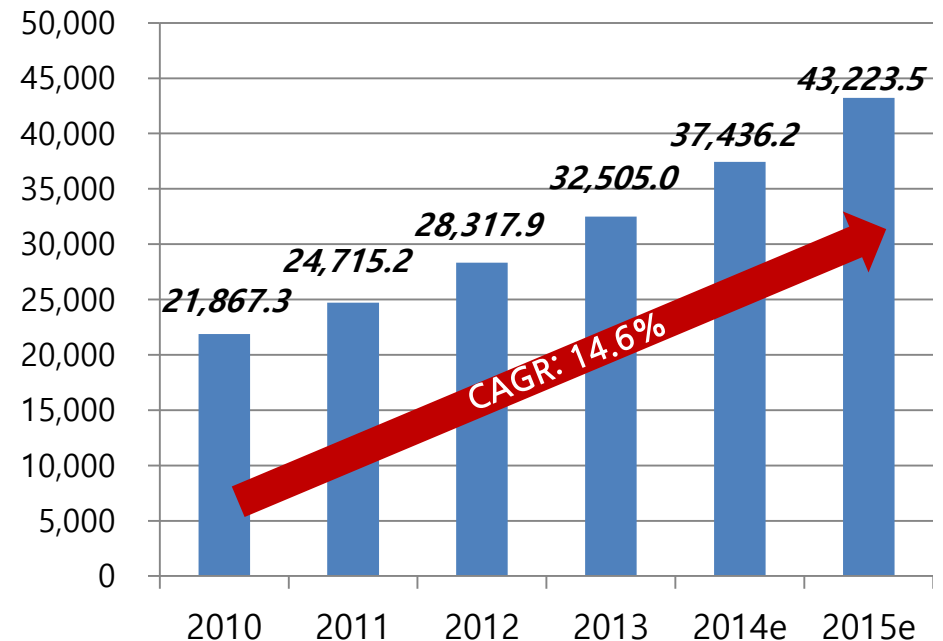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주요 콜드체인 식품 소비 (위안)]



주 : 주요 콜드체인 식품은 육류, 수산물, 야채류, 말린 식품, 유제품.

자료 : “中国冷链物流发展报告(2014)”, 2014.

[중국 식품 콜드체인물류 총액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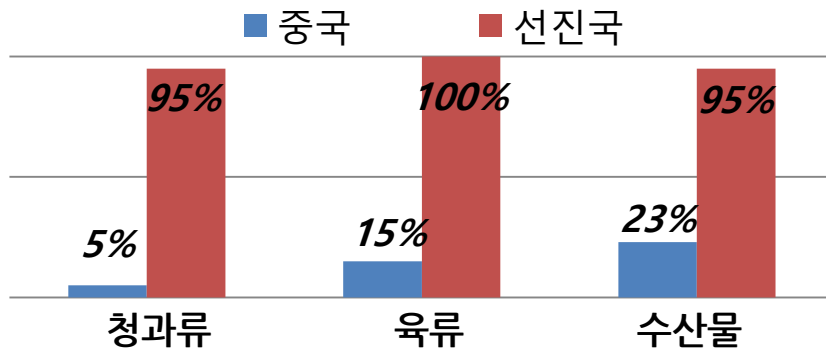


자료 : “中国冷链物流发展报告(2014)”, 2014.

2. 중국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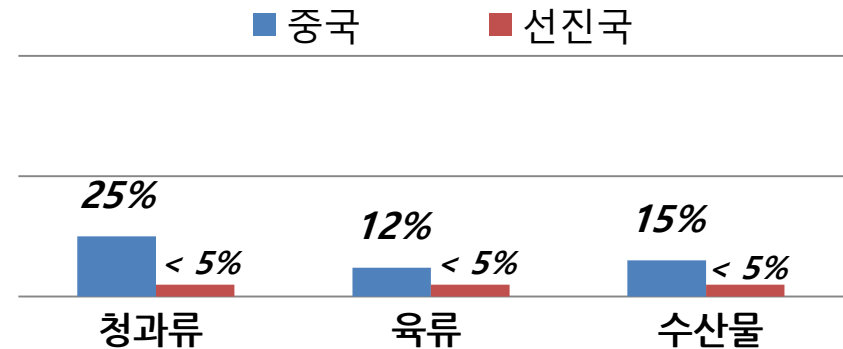
- 중국 콜드체인 시스템의 미흡으로, 유통과정 중 농수산품의 부패 손실률이 높은 편임
 -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약 20~30%가 부패,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청과류의 경우 1,00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이 넘는 상황임
- 냉동냉장 창고, 냉장보온 차량 등 콜드체인 인프라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중국과 선진국의 콜드체인 유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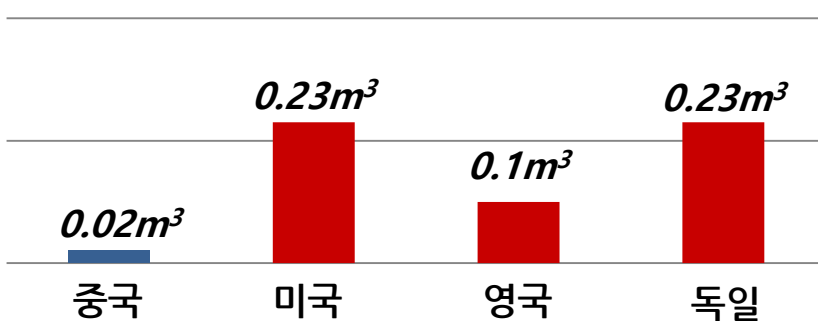
자료 : CICC, “证券研究报告：烟台冰轮”, 2014.6.

[유통과정에서의 부패 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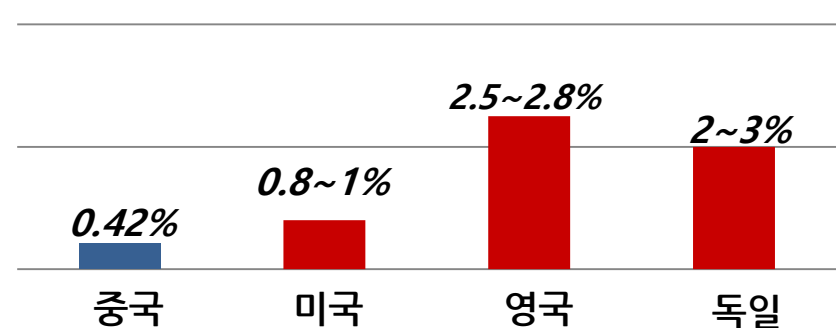
자료 : 상동.

[1인당 냉동·냉장창고 용량 비교 ('12년 기준)]



자료 : 상동.

[전체 화물차량 중 냉장차량 비중 비교 ('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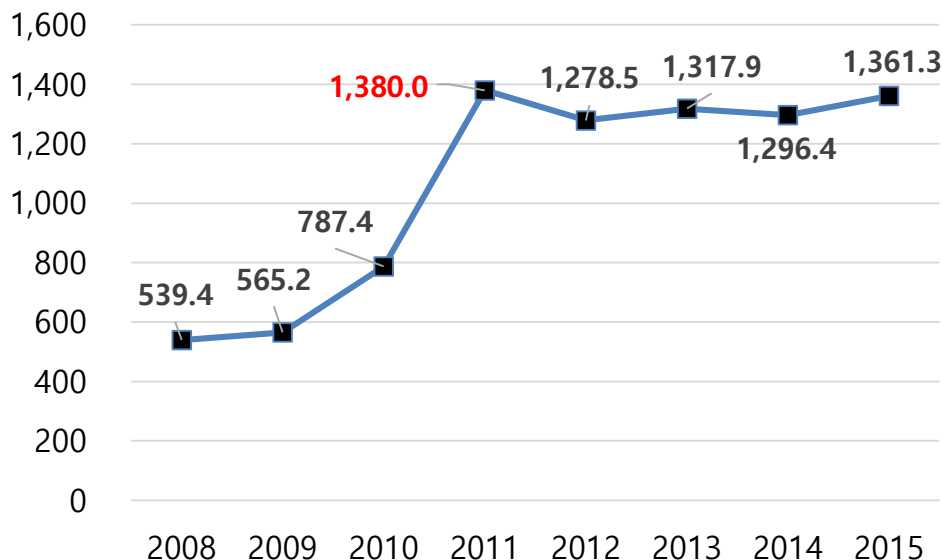


자료 : “中国冷链物流发展报告(2014)”, 2014.

3. 한국 농수산품의 중국 수출 동향

-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금액은 증가 추세 ('11년 13.8억 달러로 최대치 기록)
 - '15년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대 중국 수출금액은 중국의 경기 부진 및 한국의 메르스 발병에도 불구하고 유통 채널 다변화(온라인, TV 홈쇼핑), 영유아 식품 진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13.6억 달러
- 수산물의 경우, 원료성인 대구, 어란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조미김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3.1억 달러 달성
 - '16년 1분기에는 한중 FTA로 인해 수입 관세가 인하된 김의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 참치 117.0% 증가하는 등 FTA 관세 인하 효과 가시화

[한국 농수산물 대 중국 수출동향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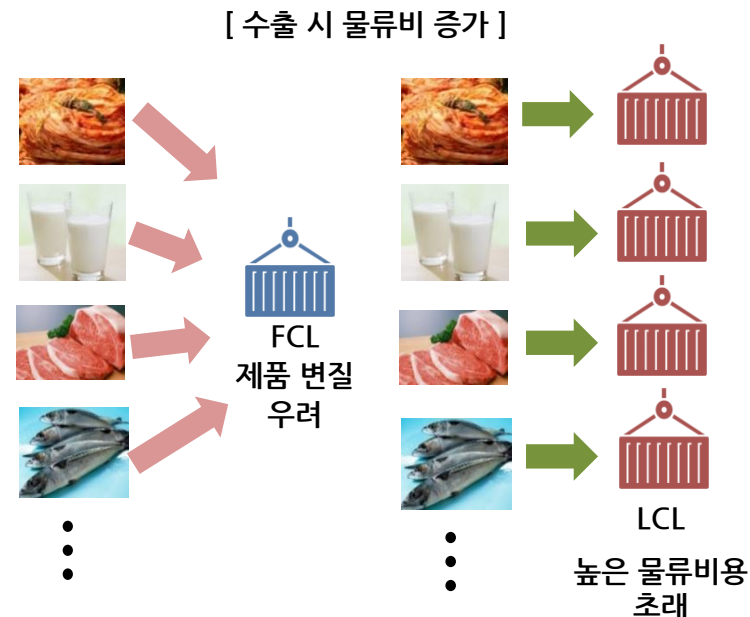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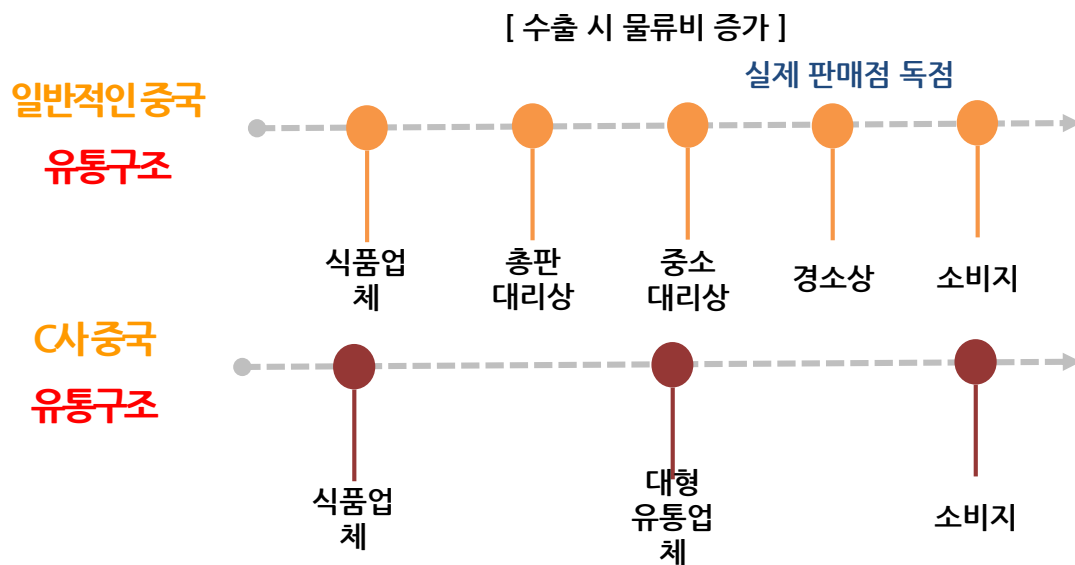
자료 : aT, 국가별 수출입통계(2008-2015).

[주요 수산물 대 중국 수출 현황 (천 톤, 백만 달러)]

2014년				2015년			
수산물 전체		물량	금액	수산물 전체		물량	금액
		119.5	309.2			119.1	313.2
1	김	1.7	45.3	1	김	2.5	66.4
2	오징어	31.6	39.1	2	오징어	37.4	38.0
3	어란	3.0	24.4	3	삼치	8.7	25.1
4	명태	16.6	23.9	4	어류제품	4.1	24.2
5	대구	7.8	22.3	5	대구	6.5	20.4

자료 : aT, "2015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6.4.

- 통관, 위생장벽(SPS)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한국 제품의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
 - (사례) 2014년 5월 중국은 한국산 우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5년 6월 수입 재허가
 -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14일, 이중 중국으로 운송 2일, 통관 2~3일, 중국 내 운송 1일 등이 소요되며, 통관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판매 불가능 (리스크가 높음)
- 중국 특유의 유통구조로 인한 모방 제품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 한국 식품기업과 중국 파트너상간의 신뢰 문제 발생 우려
- 대중국 수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 높은 물류비용을 지불
 - FCL이 되지 않을 경우 신선식품 특성상 변질의 우려로 다른 LCL화물과 혼재가 어려움(LCL 서비스 불가능)



5. 한국 식품의 중국진출 애로사항

- 중국의 대다수 냉동·냉장창고는 30~40년 전에 지은 낡은 시설이며, 콜드체인 관리기법, 냉열방지 및 소방 시설 등 미흡으로 화물에 대한 안전성에 위험이 존재
 - 전용 냉동차량 역시 부족한 상황이며, 장거리 운송이 많은 중국의 특성상 운송 중 화물의 변질 위험 존재
- 물량확보가 어려우며,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여름 성수기에 몰려있어 수요 변동성이 큼
 - 전체 배송량 중 냉장배송의 평균비율이 6.5% 수준이나, 여름 성수기에는 최대 15%까지 증가함
 - 성수기에는 냉장 트럭 등 확보하기 어려우며,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배송하기도 함
- 중국 물류기업간의 상생 협력 체제 미약
 - 한국계 화주기업이 적으며, 물량이 소규모인 관계로 시설 투자에 애로
 - 자체창고, 트럭운영으로는 서비스 고객 발굴 어려우며, 창고 및 운송기업간 네트워킹 빈약

[중국 B사 냉동냉장창고 내부 시설]



[중국 장거리 지입 합차 운영 형태]



Part III. 중국 콜드체인 시장 진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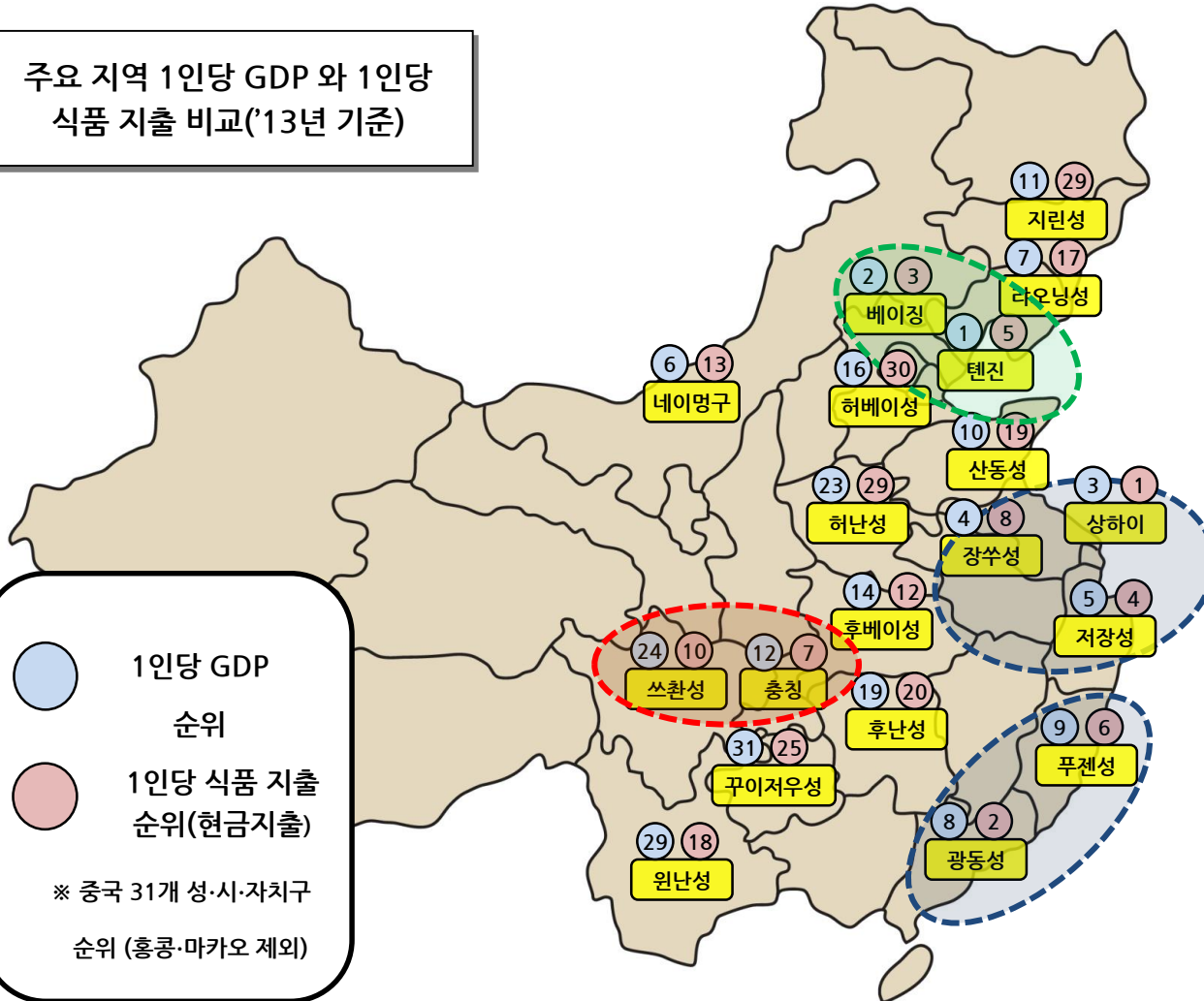
1. 진출대상 입지
2. 진출대상 분야
3. 한·중 기업간 협력 진출
4. 활용가능 Biz 모델



1. 진출대상 입지

- 고소득 지역, 식품 소비가 높은 지역,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유사한 지역 등을 우선 진입시장으로 선정 필요
- 소득수준 및 식품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발해지역, 장삼각지역, 주삼각지역이 1차적인 진출 권역

주요 지역 1인당 GDP 와 1인당
식품 지출 비교('13년 기준)



- 2014년 기준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 도시 82개

- 1위 커라마이(신장자치구) 36,358달러, 9위 광저우 21,039달러, 30위 베이징 15,011달러, 34위 상하이 14,560 달러, 82위 마안산(안후이성) 10,007달러 등

- 도시 내에서도 지역 소득 수준 상이

[광저우시 구별 1인당 GDP (달러)]

지역	1인당 GDP	지역	1인당 GDP
越秀区	36,919	番禺区	16,633
荔湾区	17,765	花都区	16,926
海珠区	12,867	南沙区	26,468
天河区	33,025	增城区	13,807
白云区	10,461	从化区	8,459
黄埔区	51,922	시전체	21,040

- 중국의 콜드체인 인프라 수준 역시 각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초기 고정자산 투자 없이 콜드체인시장 진출을 고려할 시에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역으로 진출 필요
- 창고 인프라의 경우 장쑤성이 중국 전체 용량의 23.1%, 산둥성 12.9%, 상하이시 8.1% 등으로 동부연해 지역의 비중이 높으며, 윈난, 간수, 지린, 닝샤, 헤이룽장, 꾸이저우, 칭하이성의 경우 전체의 1% 미만임
 - 상하이 같은 최근 경쟁으로 인해 냉동냉장 창고의 임대료가 고시가격보다 낮은 상황임(중국 평균 3.5~5 위안/m² 수준)
- 차량 인프라의 경우는 상하이가 중국 전체의 31.0%로 차지하여 가장 높음

['15년 중국 지역별 냉동·냉장 창고 현황]

No.	지역	저장능력(톤)	비중(%)
	중국전체	26,260,640	100.0%
1	장쑤성	6,058,833	23.1%
2	산둥성	3,377,267	12.9%
3	상하이시	2,123,885	8.1%
4	광둥성	1,460,984	5.6%
5	베이징시	1,349,680	5.1%
6	허난성	1,338,960	5.1%
7	후난성	1,024,770	3.9%
8	랴오닝성	966,380	3.7%
9	허베이성	885,715	3.4%
10	저장성	784,909	3.0%

자료 : 中冷联盟, “2015版全国冷链物流资源分布图”, 2015.

['15년 중국 지역별 냉장·보온 차량 현황]

No.	지역	냉장·보온차량 (대)	비중(%)
	중국전체	99,663	100.0%
1	상하이시	30,920	31.0%
2	허난성	11,168	11.2%
3	광둥성	9,902	9.8%
4	산둥성	9,443	9.5%
5	베이징시	7,085	7.1%
6	장쑤성	4,204	4.2%
7	푸젠성	4,033	4.0%
8	신장자치구	3,096	3.1%
9	안후이성	2,805	2.8%
10	후난성	2,271	2.3%

자료 : 中冷联盟, “2015版全国冷链物流资源分布图”,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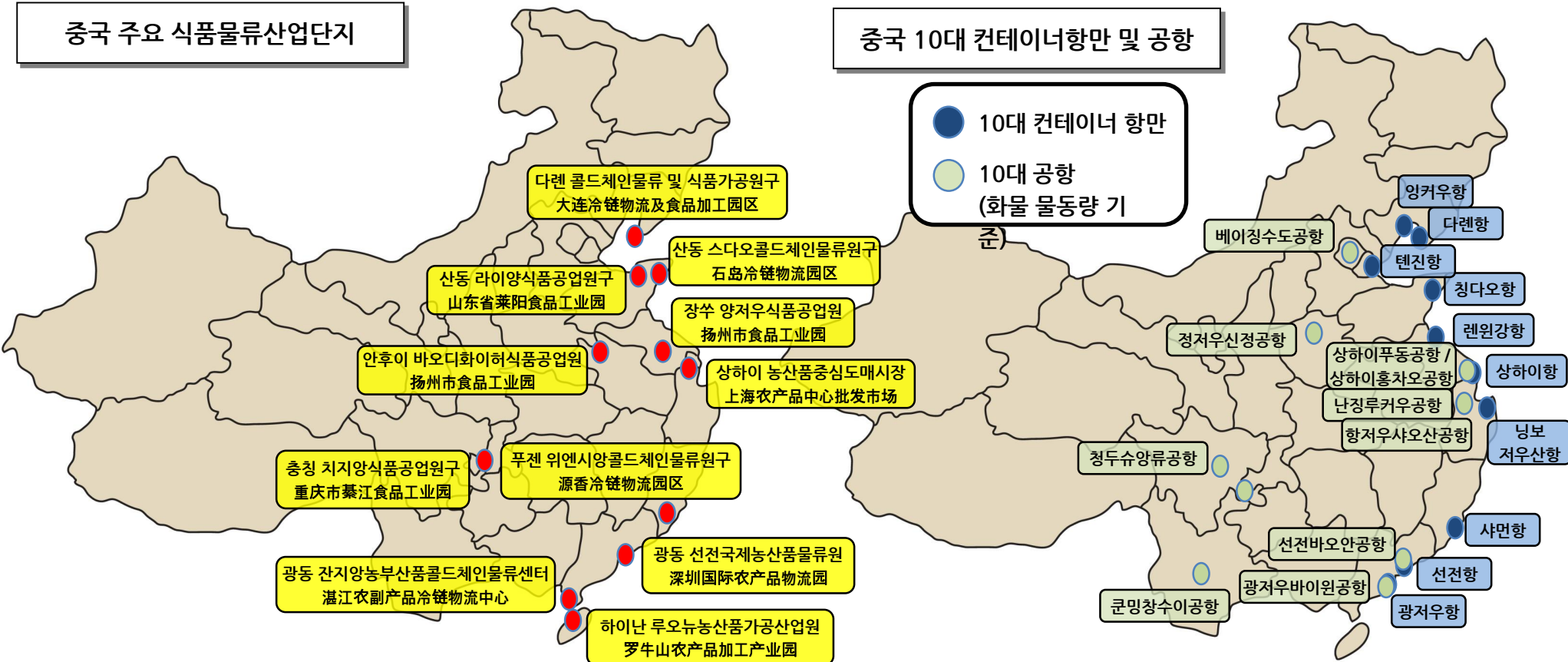
1. 진출대상 입지

- 중국 각지의 식품산업원구, 콜드체인물류원구, 농산품물류원 등 식품 관련 산업단지를 물류거점으로 활용
- 수출입 연계가 용이한 주요 공항만을 물류거점으로 활용 모색

중국 주요 식품물류산업단지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및 공항

- 10대 컨테이너 항만
- 10대 공항
(화물 물동량 기준)



2. 진출대상 분야

국제운송 분야

- **한중간 콜드체인 운송수단 다변화 및 '복화'운송 모색**
 - 정기선/항공 운송 외에도 한중간의 다양한 카페리 노선을 활용하여 콜드체인 운송의 신속성/정시성 확보
 - 중국 최대 시장인 장삼각지역으로의 새로운 기항지 모색 필요
 - 한·중 식품, 물류기업간 정보 교류, 업무협력을 통해 리퍼 컨테이너의 복화운송 실현으로 공컨테이너 회귀 절감
- **복합연계운송을 통한 중국 경유(T/S) 및 중국에서 제3국으로의 국제운송 범위 확대**
 - 중국에서의 Block Train, 도로운송을 통한 CIS/유럽지역, 동남아지역으로의 국제운송 확대

냉동·냉장창고 분야

- **중국내 생산거점 및 물류거점에 냉동·냉장창고 운영**
 - 보관/입출고 관리 외에도 전기 기능, 포장 및 간단한 가공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센터 구축
 - 전자상거래 '수입시범'지역에 냉동·냉장 창고 설립을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진출 모색
- **창고 설립 시 컨소시엄, 현지 기업과의 공동 투자, 국부 펀드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 방법 모색**

포장용기 및 ICT 분야

- **IT 기술 등을 활용한 창고운영 및 물류과정 내 온도관리 등에서 한국의 강점 보유**
 - 신용합물류 및 SCCP(Smart Cold Chain Packing) 시장 및 기술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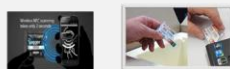
- 포장재 별 용기
- PCM 등의 냉매



- 냉동, 냉장 공보
- 물류관련 Process



- 센싱, 실시간 정보처리 및 모니터링
- 최신 ICT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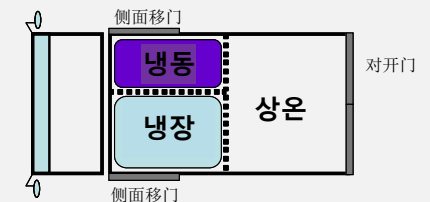


- QA / QC / OQ 등
- Validation manual



중국 내륙운송 및 도심배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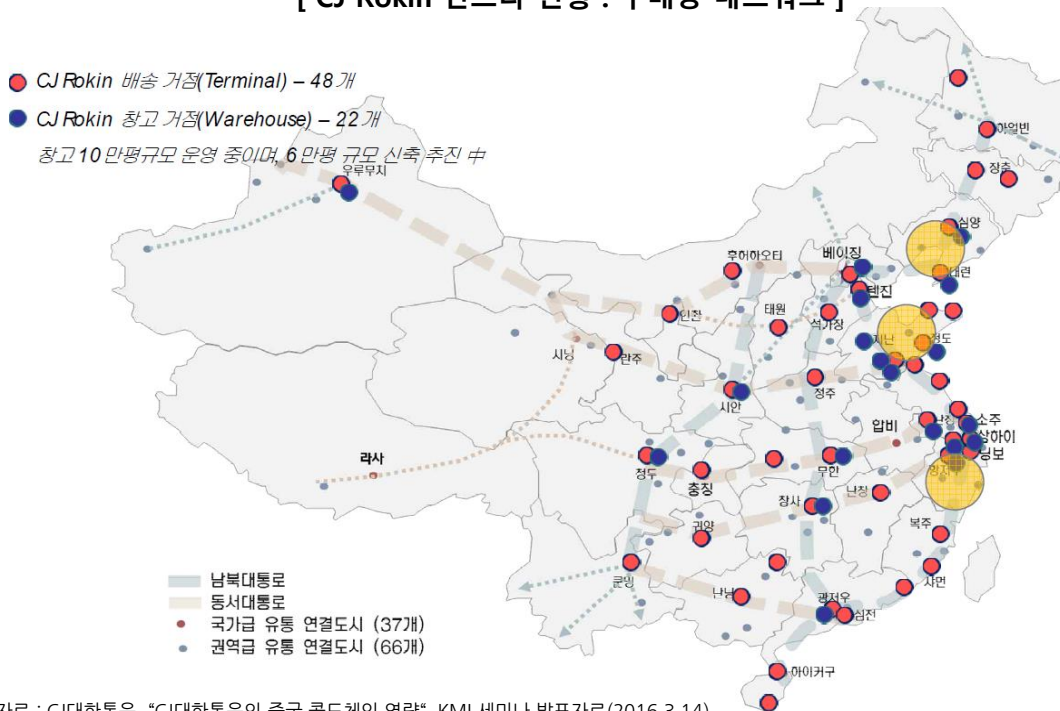
- **중국내 도로(LTL/ FTL), 항공, 연안해운, 철도운송 등 다양한 지역간의 운송 방안 고려 필요**
 - 특히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콜드체인 운송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부상 전망
- **도심배송, 택배의 경우 특정 대도시에서 고급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범위 확장 필요**
 - 일본 YAMATO택배는 상하이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범위 확장



3. 한·중 기업간 협력 진출

- 한국 물류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부족(약점)을 보완하고 높은 운영효율(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물류기업과의 협력 필요(제휴, 합자/합작, M&A 등)
 - 한국기업 : 현지 물류기업과의 협력 진출 후, 점진적인 네트워크 확장, 공급사슬의 수직, 수평적 통합 모색
 - 중국기업 : 자본투자 부담 완화, 냉동냉장창고 운영 노하우 및 기술 제휴
- 중국 현지 기업 M&A, 지분인수를 통한 중국 시장 네트워크 확보도 좋은 방안
 - 2015년 CJ대한통운이 중국 콜드체인물류업계의 강자 Rokin물류(荣庆物流) 지분 71.4% 인수하는 등 국내 대형 물류기업들의 중국 콜드체인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 Rokin물류는 General Cargo, Cold Chain, Chemical 등을 3대 사업 하며, 주로 수배송위주 사업을 전개

[CJ Rokin 인프라 현황 : 수배송 네트워크]



[CJ Rokin 주요 고객 현황]

구분		MNC	Local
Cold Chain	식품	MARS, Wilmar, AAK, Wyeth, Pepsico, Lotte, DKSH, CP	金帝, SINODIS
	외식	KFC, Pizza Hut, 东方既白, BreadTalk	一茶一坐, 85°C
Chemical	제약	ask, NOVARTIS, F. FRESENIUS, SANOFI, novartis	Sinopharm, SPH
	화학제품	BASF, DSM, DOW, WACKER, LANXESS, MERCK, NCH, Orlon	BLUESTAR, 中国蓝星
General Cargo	페인트	AlcoNobel, PPG, AKALIT, Yalspar, sto	
	화장품, 의류	CHANEL, L'OREAL, Roca, Puma, adidas, SCA	BIOSTIME, 三生元, AURORA
	전자부품	ABB, SIEMENS, molex, Schneider Electric, E.T.N	
	기계, 자동차부품	CAT, metso, Novacel, 3M, BOSCH	

4. 활용가능 Biz Model : 한·중 FTA 활용

-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반 마련
 - (농산물)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한 양허 개선
 - (수산물) 전체 품목의 99%가 개방됨에 따라,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원산지 기초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수출 가능
 - 한·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PSR)은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FTA특혜 활용 가능
- 특히 한중 FTA 체결을 통해 ‘관세 혜택’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

[한·중 FTA 농수산가공식품 활용 모델]



[활용예시 : 만두(HS 1902.30)]



4. 활용가능 Biz Model : 한·중 FTA 활용

-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수출 모델 예 : 홍삼드링크, 인삼주 가공 수출
- 원재료(홍삼) 국내 조달, 부재료(꿀, 유리병, 구연산 등)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 수출
 - 중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산 인정
 - * '누적기준'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 관세 혜택 부여

[홍삼드링크, 인삼주 한·중 FTA 양허 내용]

품명	HS 코드	기준 세율	FTA 관세	원산지 결정기준
홍삼드링크	2202.90	35%	20년 철폐	2단위 세번 변경
인삼주	2208.70	10%	20년 철폐	4단위 세번 변경

[인삼·홍삼 주원료의 국산 사용 비중 (%)]

원료	국산 비중
인삼	100%
홍삼	100%
홍삼엑기스/분말	79.1%
인삼엑기스/분말	8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aT,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김제 자유무역지역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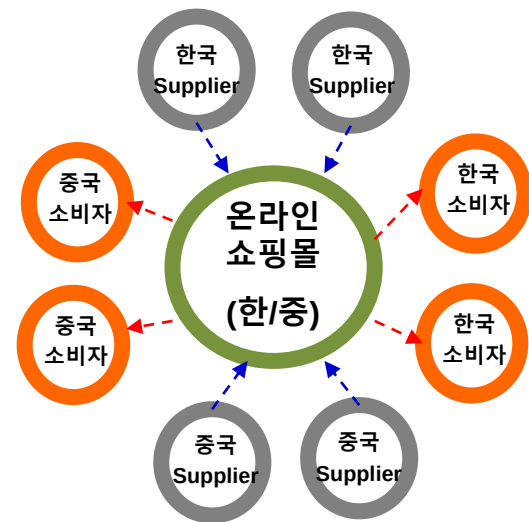


4. 활용가능 Biz Model : 전자상거래 활용

Part III. 중국 콜드체인 시장 진출 방안

- **한·중 온라인 쇼핑몰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식품 판매 채널 다양화**
 - 양국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상품 신뢰도 증진
 - 현지 영업력이 부족한 기업(농장, 중소 제조유통기업) 등도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 및 판로 생성 가능
- **콜드체인 물류 집하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 및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에 물류센터 등 운영 검토**
 - 중국 전자상거래 '보세구 모델(B2B2C)'을 활용, 국내에서 콜드체인 물류 규모화 통해 물류비 인하 및 콜드체인 전문화 실현
 - * 전자상거래 '보세구 물류모델'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에서 대량의 상품을 미리 구매후 중국 내 지정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소비자가 온라인 주문 시 반출 절차를 거쳐 배송하는 모델
 -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시범' 지역(보세구)에 냉장·냉동 창고 설립을 통해 중국 현지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진출 모색

[한·중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판매]



지역협동조합

중국어
플랫폼
개설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활용한 물류센터 운영 모델]



감사합니다

